



posco



포스코 『제3회 출자사 심결사례연구회』 개최

포스코는 기업집단 차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확산을 위해 9. 5(수) 『제3회 출자사 심결사례연구회』를 포스코센터 비즈니스홀에서 개최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심결사례연구회에서는 포스코 기업집단소속 계열사 중 서울지역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건설, 포스데이타, 포스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심결사례연구회에서는 한국코아 기업결합심사 건에 대한 사례를 포스코에서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간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제도, 공정거래 웹사이트 개편 등에 대한 포스코의 설명이 있었으며, 포스데이타에서는 하도급거래에 대한 점검 내용을 발표하였다.

향후 포스코는 기업집단 공정거래담당자들의 전문 역량 향상을 위해 『출자사 심결사례연구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관련워크샵 등을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회원사 소식



NRC



▣ (주)엔알커뮤니케이션 '방문판매법 사전점검 프로그램(PIP)' 업계 최초 시행 ▣

(주)엔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7월 16일부터 '직접판매공제조합'의 '방문판매법 사전점검 프로그램(PIP: Preliminary Inspection Program)'을 업계에서 최초로 시행했다.

PIP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예방의 일환으로 회원사의 요청에 따라 다단계업체의 방문판매법 준수 여부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프로그램이다.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각 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PIP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지침에 근거하여 회원사의 준법 여부나 위법소지를 점검하여 자문을 하게 된다. 기업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소비자피해 예방활동에 전사적 역량을 모아 상시적으로 경영활동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능동적인 활동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주)엔알커뮤니케이션은 2004년 4월 26일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한 이래 지속적인 자정활동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CP 등급평가에 참가하여 자율준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했다.



▣ 공정거래 역량강화 맞춤형교육 실시

■ 롯데제과(주)

- 일시 : 2007년 9월 18일
- 내용 : ① 하도급거래공정화제도 이해 및 법위반 사례
② 불공정거래행위금지제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이해
③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및 심결사례

■ (주)지엔텔

- 일시 : 2007년 8월 10일
- 내용 :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공정화제도의 주요내용